



동약의 봄 ... 예년보다 일찍 캠퍼스에 꽃소식이 전해졌다. 환하게 핀 꽃들처럼 동국인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 기운이 가득하길 기대해 본다. 이정훈 객원기자 dgupress@dongguk.edu

미디어센터, 올림픽 취재단 모집 일반학생 4명 선발 ... 북경 동문회 후원

동국미디어센터(센터장=윤재웅·국어교육)에서는 오는 8월에 열리는 2008북경 올림픽 기간 동안 학교 홈페이지 중계와 자원봉사활동 등을 진행하고, 이에 따라 현역 학생기자들과 함께 활동할 재학생 취재단을 선발한다. 일반 학생들의 참여에 학내 언론의 현장취재 능력을 강화시키고 교육효과를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5일부터 22일에 걸쳐 전·후반기 두 차례에 나누어 파견된다. 취재단은 △베이징 올림픽 현지 상황 학교 홈페이지에 중계 △한국 주요 경기 응원단 체험 △중국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재중국 동문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동문들의 후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자발급을 제외하곤 학생부담은 없다.

한계 일반 재학생 취재기자 4명을 모집한다. 지원을 원하는 학생은 오는 23일까지 동국인 사이트(www.donggukin.org)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에서 합격하면 면접전형이 오는 30일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다음달 2일 확정된다. 선발된 학생들은 취재교육 8회와 중국문화교육 8회를 받고 취재단 활동에 투입된다.

제40대 총학생회 선거 결국 무산 일부 학생들 반발 시위 ... 학교측은 요지부동

제 40대 총학생회 선거가 학교측의 선거인 명부 제공거부로 지난 11월에 이어 또다시 무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선거가 예정됐던 지난 2일 "학교 측에서 중선관위 구성의 적법성문제로 선거인 명부를 넘겨주지 않아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선관위는 지난 2일부터 이틀간 학내 곳곳에서 "학교 측의 선거개입에 대한 항의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1,321명의 학생이 참여해 학교측의 선거인 명부 제공 거부에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 중선위는 지난 4일 이를 학생서비스팀에 전달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일부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선거 후보자였던 현성(국문4)·신동욱(법4)조를 중심으로 구성된 '학교 측이 총학생회 선거 개입에 반대하는 동국인 모임'은 지난 2일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의 선거 개입에 대해 비난했다. 이들은 "동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검은 옷을 착용하는 등의 퍼포먼스를 가지기도 했다. 이어 4일에는 문과대·사범대 학생회가 중심이 된 학생 150여 명이 본관 4층 총장실 앞에서 선거에 대한 학생서비스팀의 개입에 대해 총장면담을 요청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어 자리를 옮겨 학생서비스팀을 방면해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2일 학생들이 학생서비스팀에 항의방문 한 모습.

한편, 중선관위는 학생회칙에 근거, 3일 오후 6시 자동해체 됐으며, 같은 날 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장으로 예술대 대의원장 이혜원(영화영상4) 양이 선출됐다. 이처럼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되고, 학생자치기구가 갈등이 극단적

으로 치달음에 따라 학생사회의 분위기가 우려된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로 운영돼 오던 총학생회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문과대·정산대·사범대·예술대 등 일부 단과대가 참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재희(사학4)문과대 학생회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국제게임심포지엄 14일 개최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집중 조명

게임멀티미디어공학과가 CT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8 서울 국제 게임 심포지엄(SIGS 2008)'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14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Advanced 3D Game Technology'라는 주제로 한국 온라인 게임을 조명하는 학술세션과 실제 게임기술을 접해보는 산업체 세션으로 구성됐다. 학술세션에서는 고려대 한

정현 교수와 Naval Postgraduate School의 Christian Darken 교수 강연이 계획됐다. 산업체 세션에서는 Halo3의 개발자와 Havok사 AI개발자의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참가접수는 http://sigs.dongguk.ac.kr의 Registration 코너를 통해 오는 10일까지 접수가능하다. 학생, 교수, 게임 산업체 등뿐만 아니라 타 대학 학생도 참가할 수 있다.

도서관 시험기간 중 연장 개관 장충문화센터에도 100석 열람실 이용 가능

중앙도서관(관장=석원경·화학)은 이번 중간고사 기간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중앙도서관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장충문화센터에 열람실을 확보한다.

간 도서관 개관 시간을 연장한다. 원래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였던 것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로 연장하는 것이다. 일요일에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한편 9일은 제18대 국회

의원 선거로 인해 휴관한다. 또한 오는 14일부터 12일간 장충문화센터에 남녀 각각 50석씩 100석을 마련할 예정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요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한다. 이용을 원하는 학생은 학생증을 제시하면 선착순으로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다.

'남산 벚꽃축제' 자원봉사자 모집 7일까지 참가신청서 메일로 선착순 100명

참가신청서(단장=조준영·물리학)은 '남산 벚꽃축제' 개막식 진행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남산 벚꽃축제'는 서울에서 올해부터 개최하는 행사로, 봉사활동시간은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가량이며, 남산 벚꽃축제 개막식 안내 및 질서유지와 서울시장 및 참가 시민의 벚꽃 길 걷기를 돕는 활동을 하게 된다. 신청은 교수, 학생, 직원, 동문 등 학내 구성원이라면 모두 가능하며, 남녀 각 50명씩 100명을 선착순

접수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동국 참사람봉사단 메일(volunteers@dongguk.edu)로 △성명 △성별 △소속 △주소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보내면 된다. 신청은 오늘(7일) 오후 5시까지이며, 선발자는 오는 8일 동국참사람봉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정아 징역 1년 6월 선고 변 전실장 집행유예 2년·영배스님도 실형 선고

신정아 씨가 사문서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형사단독 김명섭 판사)은 신 씨에 대해 광주비엔날레 예술 총감독 선임과 관련한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성폭행 판사 시 공금 횡령 혐의 등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김명섭 판사는 또, 흥덕사와 과천 보광사 등 사찰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그리고, 흥덕사 특별교부세의 지원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이사장 영배스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법인 사무처장 정안 스님은 "형평성에 어긋난 과중한 처벌"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화제의 동국인 '왕과 나'에서 열연 펼친 박하선, 그녀를 만나다



"캠퍼스 생활은 일종의 휴식 같은데. 연기로 인해 지친 저를 편안하게 하거든요." 영화 '바보'에서 주인공의 미워할 수 없는 여동생 지인과 드라마 '왕과 나'에서 연산군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는 중전 신씨 등, 여고생에서부터 한 나라의 국모까지 최근 다양한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배우, 우리학교 예술대학에 재학 중인 박하선(연극3) 양을 만났다. "밖에서는 연기를 하는 사람이지만, 학교에 오면 또래와 함께 생활하는 대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어 정말 좋아요." 학교에 대한 애착이 대단한 그녀는 만일 우리대학에 합격하지 않았다면 다른 학교는 생각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바쁜 스케줄에 시달리는 배우이지만 학업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많은 연예인 대학생들처럼 학업을 소홀히 할 것이란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고. 박하선 양에게 들은 그녀의 대학생 생활은 어느 재학생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강의를 듣고,

공강 시간에는 학과 친구들과 함께 만화방이나 스케이트장에 찾아가고, 빈 강의실이나 과학실험실에서 낮잠을 자는 털털함도 지녔다. 또, 3학년으로서 후배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자상한 선배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 "많은 재학생들이 사회에 첫 발을 디디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사회경험을 먼저 해 본 입장에서, 젊음을 무기로 도전하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그녀. 백지 같은 배우. 박하선 양이 꿈꾸는 배우의 모습이다. 그녀가 그 백지에 어떠한 색깔을 칠할지 다함께 주목해보자. <중> wondergirls@dongguk.edu

발전기금 060-700-0119

취재단 모집요강

- 모집인원 : 4명**
전반기 : 일반학생 2명 (2008년 8월 5일 ~ 15일)
후반기 : 일반학생 2명 (2008년 8월 12일 ~ 22일)
- 활동내용** : 베이징 올림픽 이모저모를 학교 홈페이지에 중계
- 선발기준**
1)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꿈을 가진 학생
2)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
3) 취재단 참가활동 이후 동국미디어센터 명예기자 활동이 가능한 학생
- 참가비용** : 전액무료
한-중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성사되면 비자발급 비용 자동 면제
- 지원방법** : 동국미디어센터의 <DONGGUK-IN> 사이트 내에 <북경올림픽 취재단 모집>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서류지원마감** : 4월 23일 오후 6시
- 1차 합격자 발표** : 4월 28일 오후 6시 <DONGGUK-IN> 사이트
- 면접** : 4월 30일 오후 6시, 동국미디어센터
- 최종 합격자 발표** : 5월 2일 오후 6시 <DONGGUK-IN> 사이트
- 선발 이후의 활동**
1) 취재 교육 : 5월 6일 ~ 31일, 주 2회씩 총 8회
2) 중국문화 교육 : 7월 7일 ~ 8월 1일, 주 2회씩 총 9회
(중국어 회화, 중국문화특강, 취재단 자체 워크숍)
- 문의사항** : 동국미디어센터 02-2260-3494 / www.donggukin.org

애들이 베이징올림픽 취재 가자!

동국대학교 동국미디어센터에서는 중국 불교 문화와 올림픽 취재를 담당할 패기있는 젊은 동국인을 모집합니다.

Beijing 2008

주관 : 동국미디어센터 / 후원 : 동국대학교 재중국동문회

해외대학과 학술교류협정, 2년새 '쑥쑥'

교환학생·인턴십 기회 증가 예상

우리대학의 국제교류가 활기를 띠고 있다.

국제화추진단(단장=김일중·국제통상학)에 따르면 학술교류협약이 체결된 외국대학의 수가 2006년 47개 대학에서 2007년 11개 대학과 협약을 맺었는데 이어 올해도 최소 12개 대학과 협약을 맺어 현재 모두 63개 대학과의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 짓고 최종 조인만 남겨놓고 있는 대학도 8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올해 안에 70여개 이상의 대학과 활발한 학술교류와 학생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6년에 비해 2년만에 30여개가 넘는 대학과 학술교류 협약이 이뤄진 셈이다.

지난해부터 교류 협약을 진행한 대학으로는 영국의 골드스미스대학(Goldsmith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과 일리노이 주립대(Illinois state University) 등 20여개의 대학에 달한다. 또 올해 9월부터는 이들 대학에 교환학생 파견을 예정 중에 있다

또한 뉴욕주립대(SUNY-Stony Brook)와 텍사스대(University of

Texas, Dallas) 등 미국의 명문 대학과 복수학위 취득 협정을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KOTRA와 인턴십 파견 협정을 맺고 캐나다 UBC 및 아시아 지역에 학생 20명의 인턴십 파견을 추진 중에 있다.

국제교류팀 측은 기존에 아시아 쪽에 집중하던 교류를 미주 지역 및 유럽 쪽으로도 넓히는 등 학술교류의 가치가 높은 대학을 위주로 협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학교가 지난해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국제화 전략이 이제 서서히 결실을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교내 학생을 해외로 보내는 아웃바운드(Out-bound)에 비해, 해외 인재를 우리학교에 유치하는 인바운드(In-bound)의 인프라 구축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국제적인 홍보도 지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캐나다 UBC 교환학생 선발

장기-토익 650이상, 단기-700이상 지원 가능

국제화추진단(단장=김일중·국제통상학)이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UBC) Global Academics 교환학생을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우리학교에서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부·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성적은 학기당 평균 15학점 이상 이수, 누계 평균

평점 3.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장기 과정은 TOEIC 650점 이상, 단기 과정은 700점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과정 안내는 국제화추진단 홈페이지(ie.dongguk.edu)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국제화추진단(02-2260-3462)로 하면 된다.

현재 단과대 건물마다 설치되어 있는 사물함은 문과대와 사과대의 경우 학사운영실에서 관리하고, 경영대와 법대는 단과대 학생회가 관리하고 있다. 또한 불교대, 이과대, 공대, 사범대, 예술대, 생과대, 영상미디어대는 각 과학생회가 관리한다. 사물함 대여료도 각 단과대마다 차이가 있다. 문과대, 사과대, 사범대, 생과대는 학생들에게 사물함을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반면 △경영대=3천원 △법대=4천원(학생회비 납부자 면제) △불교대=6천원 △기타학과=3천원~5천원의 사물함 대여료를 받는다.

단과대 학생회, 각 과학생회에서 사물함 대여료를 받는 경우 모아진 대여료는 학생회 사업에 쓰여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과대 사물함을 신청한 이 모양은 "3천원씩 500명의 학생들에게만 받아도 백 5십만 원이 모인다. 학생회비를 납부했는데 사물함조차 무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사물함을 학사운영실에서 관리하는 문과대 측은 학생회와 협의할 거처 다음 해부터는 학생회에 사물함 관리·책임을 넘겨주려고 한다. 하지만 사물함 대여료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다는 것이



맛있는 대화 ... 지난 1일부터 경영대학(학장=이병철·경영학)은 교수, 학생간 교류기회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교수와 4명의 학생이 점심식사 후 대화를 하며 대화하는 모습. 김나리 기자 vik26@dongguk.edu

사물함 대여료, 꼭 거둬야 하나?

대여료 징수 놓고 학생의견 분분, 투명한 감사·공개 필요

단과대별 사물함 대여료 징수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사물함 대여료를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 액수의 차이,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단과대 건물마다 설치되어 있는 사물함은 문과대와 사과대의 경우 학사운영실에서 관리하고, 경영대과 법대는 단과대 학생회가 관리하고 있다. 또한 불교대, 이과대, 공대, 사범대, 예술대, 생과대, 영상미디어대는 각 과학생회가 관리한다. 사물함 대여료도 각 단과대마다 차이가 있다. 문과대, 사과대, 사범대, 생과대는 학생들에게 사물함을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반면 △경영대=3천원 △법대=4천원(학생회비 납부자 면제) △불교대=6천원 △기타학과=3천원~5천원의 사물함 대여료를 받는다.

단과대 학생회, 각 과학생회에서 사물함 대여료를 받는 경우 모아진 대여료는 학생회 사업에 쓰여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과대 사물함을 신청한 이 모양은 "3천원씩 500명의 학생들에게만 받아도 백 5십만 원이 모인다. 학생회비를 납부했는데 사물함조차 무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중앙도서관, 강의실 대관서비스 실시

14일부터 홈페이지 통해 예약 후 사용 가능
중앙도서관(관장=석원경·화학)에서는 오는 14일부터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실 대관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는 강의실 시간표를 공개하여 학생들이 빈 강의실을 예약하여 열람실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용을 원하

는 학생은 시설 대관 서비스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에서 예약할 수 있다. 학실정보서비스팀 정영근 직원은 "학내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이 서비스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체육부 종목별 춘계대학리그 출전

우리학교 체육실(실장=신관호) 체육부 선수들이 각종 춘계리그에 출전한다. 야구부(감독=김학웅)는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회장이 전국 대학야구 춘계리그'에 출전한다. 배구부는 연세대와 오일(7일) 이후 2시, 중앙대와 오는 9일 오후 2시에 각각 열린다.

학생회비 납부율 46% 4년세 절반으로 급감

2008학년도 1학기 학생회비가 총 4천842만원(지난 달 27일 기준)이 수납됐다. 이는 등록학생 1만3천74명 가운데 6천53명인 약 46.3%가 납부한 것으로 지난 2005년도 85%, 2006년도 54%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수치이다.

인턴십

일단 지원

○ ... 그들이 아무리 신청해 버린 신청서 50명. 여성 커리어 아카데미엔 신청 못한 아쉬움에 여기저기 한숨이
그런데 이젠 생각이 바뀌어 안하겠나? 예선 들어 준비한 학교도 해당 문턱에서 좌절당한 학생들도 상당.
혼자 사는 세상입니까?
지원 할 땐 의사를 확실히 결정하시고 하셔야죠.

식수대, 입도 대?

○ ... 내가 입했던 동국관 식수대. 그 식수대의 입구는 깨끗하지 않아. 니가 입했던 동국관 식수대. 수압이 약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대고 마셨거든.
니가 입했던 동국관 식수대. 관리 미흡으로 항상 약한 물줄기. 위생문제도 고려해주시길.

현수막 수난시대

○ ... 학생사회의 분열이 도를 지나쳤다.
서로 으르렁대는 것으로 모자라 상대측의 현수막을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대학생들이 벌었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데. 자자. 말로 합시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 ... 안녕하십니까 동대 누우 스입니다.
최근 축구부 선수들이 어디론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것도 새벽에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우리학교 축구부 선수들이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벽에 충무초등학교 잔디밭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교내 축구를 승무원 보고 할거야 할 것이 아니라 높은 승물을 낼 수 있도록 환경조성이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권해효, 16일 초청강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센터장=이시영·가정교육)는 오는 16일 오후 5시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배우 권해효 씨를 초청해 '젠더 커뮤니케이션' 강연회를 연다.
호주제 폐지 등에 앞장 서 온 권해효 씨는 '한국의 아버지, 남자로 말하는 젠더 커뮤니케이션'이란 주제로 강의 할 예정이다.

독약로에서

"난 참 엉터리로 강의를 했군요" "내 강의를 비디오로 찍은 것을 시청하기 전까지는 내 강의가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목소리 톤이 너무 지루하게 들린다는 것을 알게 됐다."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지난해 실시한 교수 강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수들의 참가후기의 내용이요. 교수법 강의와 함께 다양한 강의방법에 대한 컨설팅에 참여한 교수들은 스스로의 강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며 매우 만족해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교수학습개발센터가 교수법 강의를 듣거나 강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수들의 만족도는 8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 모니터링에 참여하기 전에는 쑥스러워서 참가하는데 주저했지만 결과는 매우 만족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의동영상 촬영과 상담을 받

불치하문(不恥下問)

은 김현동(경영학) 교수는 "동영상으로 기록된 강의를 통해 무의식중에 나오던 손동작이 학생들의 집중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깜짝 놀랐다"며 "학생들을 위해 보다 나은 강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교수들은 자신의 전공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다. 하지만 전문지식을 학생에게 전달하는 강의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전문가로서 또 다른 전문가에게 자신을 평가받는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수 강의평가 공개가 성과평가 시스템이다 해서 교수들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교수학습개발센터의 박세훈과장은 따르면 "강의평가 공개 이전부터 교수들은 꾸준히 교수법 강연이나 강의 모니터링에 참여해오고 있었다"며 "예전과 달리 교수님들의 생각도 많이 바뀐 것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대학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어 버렸다. 중요한 것은 변화된 상황 속에서 스스로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느냐는 문제일 것이다. 옛말에 불치하문(不恥下問)이라고 했다던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아랫사람에게라도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강의 모니터링을 받는 교수들은 꾸준히 교수법 강연이나 강의 모니터링에 참여해오고 있었다"며 "예전과 달리 교수님들의 생각도 많이 바뀐 것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정동훈 기자 gfd1226@dongguk.edu

제1회 자랑스런 동국가족상 대상자 모집

1. 시상명: "제1회 자랑스런 동국가족상"
2. 시상자격: 직계 3대 이상이거나 5명(부부, 형제, 자매, 자부, 사위 포함) 이상의 동문가족
3. 자랑스런 동국가족상 시상: 시상일: 2008. 5. 7(수) 개교기념식 행사 시 시상 예정
4.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2008. 4. 1 ~ 4. 15
 - ▶ 발전기금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신청 (학교 메인 홈페이지에서 발전기금 홈페이지 접속)
 - ▶ 시상관련 문의: 사업개발본부 대외협력실 ☎ 02-2260-3794

사업개발본부

CS개선을 위한 모니터 모집

1. 모집기간: 2008. 4. 4(금) ~ 2008. 4. 10(목) 17:00까지(7일간)
2. 모니터 선정 후보: 4. 11(금), 17:00까지 우선 및 생략 홈페이지(http://dgucoop.dongguk.ac.kr/)
3. 실시기간: 2008. 4. 14(일) ~ 2008. 6. 13(금)
4. 모집인원: 10명(학부 및 대학원생)
5. 모니터 방법: 식당 및 복지매장의 CS개선을 제출(소정양식)
6. 모니터 혜택: 매월 식권 20장씩 지급
7. 모니터 평가내용:
 - 1) 조리원 위생상태 평가
 - 2) 조리원(판매원) 친절도 평가
 - 3) 식당 청결도 평가
 - 4) 식사의 만족도
 - 5) 식사의 맛과 질에대한 평가
 - 6) 식당의 개선사항
 - 7) 식당의 복지매장 건의사항
 - 8) 생령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
8. 모니터 신청자격: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1구좌 이상 출자한 조합원, 비조합원인 경우 조합원 가입 후 활동 가능
9. 신청서 배부: 생령사무국, 생령 홈페이지 다운로드
10. 신청서 접수처: 생령 사무국(해환관 1층) ☎ 문의: 2260 - 8949

동국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여름 계절학기 안내

여름계절학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학생은 해당 기간 내에 수강신청하기 바랍니다.

1. 수업 일정
 - 가. 일반강좌: 2008. 6. 23(월) ~ 2008. 7. 16(수) / 주 4일 수업(월,화,목,금). 15일간
 - ※ 종강일: 2008. 7. 16(수)
 - 나. 계절학기강좌:
 - (1) 신사의생활: 2008. 7. 17(목) ~ 19(토) / 2박3일 / 직지사
 - 다. 매주 토·일요일은 수업 없음.
2. 일반강좌 개설대상 교과목 및 시간
 - 가. 개설예정 교과목(학교홈페이지 참조)
 - 2008학년도 1학기 및 2학기 교과목 중 계절학기 개설 기준인 원을 충족한 교과목
 - 단, 사이버강좌 및 학과에서 개설을 원하지 않는 전공·실용실습 교과목은 제외
 - 나. 개설 기준 인원: 강좌별 10명 이상(수강신청 및 등록)
 - 다. 개설 시간
3. 수강신청방법: 재학생(내/휴학생 3학점 이내 신청가능 (타대학 계절학기 교류학생 포함)

이수구분	오전시간	오후시간
교양	학수번호 끝자리 홀수강좌 학수번호 끝자리 짝수강좌	학수번호 끝자리 홀수강좌 학수번호 끝자리 짝수강좌
교직	교과교과목	교재연구지도
전공	1학기 개설과목	2학기 개설과목
4. 수업요사
 - 가. 기간: 2008. 4. 15(화) ~ 17(목)
 - 나. 장소: 교내컴퓨터 실습실(10:00~21:00), 개인PC(10:00~24:00)
 - ※ 중앙도서관, 만해관은 일반 컴퓨터실습실 개방시간과 다르므로 착오없이 바랍니다.(10:00~21:00)
 - 다. 수강신청 방법

7. 수강료 및 장학금: 2008. 6. 23(월) ~ 6. 24(화) 2일간
가. 취소 기간: 2008. 6. 23(월) ~ 6. 24(화) 2일간
나. 취소 방법: 서울캠퍼스 홈페이지->로그인->마이페이지->계절학기->수강취소

8. 개설 교과목 수업시간 확정 발표: 2008. 6. 11(수) 예정

9. 수강료
가. 이문과목: 1학점당 ₩85,000원
나. 실용실습과목: 1학점당 ₩100,000원
(일반물리학과 및 실험1, 2, 일반화학 및 실험1, 2, 일반생물학 및 실험1, 대학생물학 및 실험1, 비주요프로그램, 프로그래밍기초와 실습, 정보통신융합설계1,2, 자아와명상1, 2, 산사의 생활, EnglishConversation1,2 / EnglishReading1,2, 등)

10. 수강료 납부
가. 기간: 2008. 5. 20(화) ~ 5. 22(목) 09:30 ~ 16:30, 3일간
나. 방법
- 고지서 출력: "본교 홈페이지 my page로그인->계절학기->고지서 출력"에서 선택하여 인쇄
- 수납은행 납부: 신한은행, SC제일은행 전국지점
다. 유의사항
- 정해진 기간내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 수업료 미납으로 수강인원이 미달(10명 미만)하면 폐강될 수 있으므로 "교과목 확정 공고"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폐강된 경우 학사지원본부 교무팀(2260-3034)으로 문의 바랍니다.

11. 강의평가
가. 기간: 2008. 7. 2(수) ~ 7. 22(화)
나. 응답 학생의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으니, 본인이 수강하는 전체 강좌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이번 여름계절학기 강의평가 설문에 응하지 않은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 및 전산망에서 해당 학기 수강과목의 성적결과를 조회할 수 없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성적처리
가. 성적조회 및 정정: 2008. 7. 20(일) ~ 7. 22(화)
나. 계절학기 취득 성적은 졸업학점만 인정하며, 장학금 선발 및 학사징계 등 정규학기 학적에는 포함하지 않음
다. F학점(과락)은 성적증명서에 등재됨
라. 재수강: 교과목명이 동일한 과목을 재수강할 학생은 자동으로 재수강 처리됨. 단, 2008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의 경우 성적처리 미완료로 계절학기 재수강이 불가능하며, C+이하인 경우만 재수강이 가능함

13. 경주캠퍼스, 교류대학 계절학기(권대, 경희대, 국민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 한국외국어대는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학사지원본부

동대신문 창간 58주년 기념 좌담회 - '동대신문이 나아갈 길'

정보 홍수시대 ... 가치있는 정보 가려내야

다른 언론과 차별화된 동대신문만의 목소리 담아내길

좌담자

일 시 : 2008년 4월 2일 오후 7시
 장 소 : 동국미디어센터
 참석자 : 정희성 (시인·국문 79, 81년 취재부장)
 이만섭 (여성발명가협회 부장·인철 88, 90년 취재부장)
 김기영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원·교육 95, 97년 편집장)
 손상민 (동국대학원신문 편집장·사회 00, 02년 편집장)
 사 회 : 이윤재 (동대신문사 편집장)

사회 = 동대신문이 이제 창간 5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중년을 지나 원숙할 나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창간 이후 반 세기 이상을 지나오면서 동대신문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자리는 동대신문의 지난날을 되짚어 보고 이를 통해 동대신문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를 이야기해보는 자리로 되었으면 합니다.

정희성(국문과 79학번, 1981년 취재부장) = 제가 동대신문에 입사했을 1979년은 한국사회의 정치적 격변기였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가 말기에 접어들면서 대학과 사회 곳곳에서 독재권력에 대한 저항이 거세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79년 10.26 사태가 일어났고, 정치권력이 진공상태에 빠져들면서 민주화의 열기가 뜨거웠죠.

물론 80년 5월 광주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면서 권력의 핵심에 들어섰던 신군부에 의해 대학도 한동안 침체에 빠져들었습니다. 계엄령이 내려져 휴교가 되기도 했었고요. 휴교기간에도 신문조판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만섭(인도철학과 88학번 1990년 취재부장) = 80년대 말은 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잡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87년 6월 항쟁이 대통령 선거의 패배로 한동안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대학이 사회변혁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그 어느때 보다 자신감에 차있었습니다. 대학도 사회변화를 추동했던 학생의 파워가 강해져 학원자주화에 대한 열망이 컸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사회민주화에서 대학민주화로 시선이 옮겨졌던 것이죠.

특히 88년도 학원자주화 움직임은 다른 대학에서는 보기 힘든 성과를 이뤄 내기도 했습니다. 동대신문도 이같은 소식을 호외로 발행해 알리는 한편 심층적인 보도로 학내구성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시만 해도 신문이 발간되면 학생들이 신문을 접어 다른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편지와 함께 대학생활을 주고 받는 것이 유행이기도 했습니다.

김기영(교육학과 95학번, 1997년 편집장) = 90년대 중반은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학생사회의와 갈등이 정점을 이루었던 시기입니다.

특히 한국대학생 총연합(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면서 학생운동은 와해되기 시작했고, 대중성을 잃은 운동은 구심점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96년 8월에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범민족대회'는 행사불허방침으로 1만여 명의 학생이 17일 동안 학내에 갇혀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총련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고 사회전반적인 보수화의 흐름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학내에 선 한총련의 '사수'나 '탈퇴'냐를 놓고 학생사회 내부의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손상민(사회학과 00학번, 2002년 편집장) = 2000년을 지나면서 대학별로 서서히 학생운동이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정희성 동문



이만섭 동문



김기영 동문



손상민 동문

“대학신문은 대학사회의 의사소통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학내 아젠다를 끌어내는 기능 해야”

“냉철한 시각으로 독자들에게 사실의 전달 뿐만 아니라 진실을 전달하는 동대신문으로 거듭나길”

“상업적인 기성언론과 구분되는 시대의 리트머스 시험지같은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

“보수화된 대학사회의 의사소통의 창구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신문제작에 임해야 할 때”



서울대를 시초로 비운동권 학생들이 학생회 선거를 통해 당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신문도 80년대말 최고조를 이루었던 대학신문 기자들의 조직인 전국대학신문 기자연합(전대기련)이 해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학내에서도 운동권 동아리들이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고, 학내언론사들도 3D 업종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기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공체제의 와해라고 불릴 정도로 학생사회가 위축됐던 시기입니다.

사회 = 질곡의 역사를 겪어오면서 신문제작에 대한 애정이나 고민도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면서 신문 제작을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희성 = 70년대의 대학신문의 화두는 역시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조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학 본연의 사명인 학술적 고민이 근본이지만, 시대의 아픔을 외면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신문을 제작했던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의 시기는 그래서 아무래도 저널리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으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일간지 뿐만 아니라 대학신문도 기업사령부의 검열을 받던 시기가 원고나 승인되지 않으면 신문의 한구석이 백지로 인쇄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행간(行間)'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었죠. 직접 표현이 안되니까, 예뻐라 글을 쓰게 됐고, 독자들은 기자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 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만섭 = 선배님 군인들 사이에서 신문제작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까.(웃음) 80년대는 민주화의 진전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신문제작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검열은 아니었지만, 신문제작이 끝난 후 대학신문 기자를 연행해 조사를 한다든지, 기획기사를 문제

삼아 수배를 내린다든지 하는 구태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저희 동기중에도 아침에 등교를 하다가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던 적도 있고, 검거명령이 떨어져 한동안 학교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속에서 신문제작에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사회민주화, 학원민주화를 위해 기여할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이 살아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기영 = 1996년에는 동대신문 기자 구속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자보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소나기'라는 코너에 실린 '무장간첩 사건을 보고'의 내용 중 일부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자들이 구속되고 신문이 휴간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거치면서 학생기자들이 위축되기도 했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매체발간에 있어 보다 세심한 검토가 이뤄진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학언론에 대한 탄압이 기자 내

부의 자기검열로 이어지지는 않았는가를 우려도 있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를 거쳐 나오면서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도 봤다고 생각합니다.

손상민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학내 언론매체의 위축이 눈에 띄게 심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여러 뉴스가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시기에 주간신문으로서 과거의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매체의 지위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신문사의 조직문화나 내부의 문제의식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신문제작에 있어서도 한국 대학 전체를 독자층으로 하는 '대학 내일'이나 '한국대학종합신문' 등이 발간되면서 경쟁자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동대신문도 인터넷 신문 발간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미약한 수준이어서 독자들의 큰 관심을 얻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 = 시대는 변해도 기자들의 고민

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대신문 기자들 역시 고민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고민의 강도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현재 동대신문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공금합니다.

또 앞으로 동대신문이 걸어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씩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 대학신문은 과거 제도언론에서는 하지 못했던 진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성언론이 다룰 수 없었던 집회나 시위기사도 다루었고, 군사정권에 의해 백지로 신문이 발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간된 신문이 학내의 주요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학신문은 대학사회의 소통을 주도하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동대신문은 그러한 여론을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대학내의 아젠다를 끌어내는 기능이 약해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독자들에게 끌려가 보다는 학내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를 내세워 여론을 선도하는 기능을 보완해 다른 대학신문과는 차별화된 동대신문만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섭 = 저도 선배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여론을 반영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다 보면 대중에 의해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동대신문은 여론을 반영하기 보다는 선도하는 신문이 됐으면 합니다.

특히 다양한 학내의 사안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역사의식을 가지고 냉철한 시각으로 독자들에게 사실의 전달 뿐만 아니라 진실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의 책임의식이나 실천적 윤리규범도 가져야 할 것이구요.

김기영 = 현재는 정보 홍수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홍수시대에 정작 부족한 것이 바로 '물'이라는 점입니다. 즉 쏟아지는 정보는 많지만 옥석을 가리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구면 없이 다루는 무가치와 상업적인 기성언론과 구분되는 '홍수속에서 빛나는 물'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엄청난 양의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정보의 리트머스 혹은 정보의 거름종이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손상민 = 인터넷을 통해 정보의 양은 늘어났지만, 정작 대학내의 의사소통의 창구는 더 작아지고 좁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학사회가 보수화되면서 정보의 유통은 자유로운 듯 보이지만 정작 소통에 장애를 느끼는 구성원들은 더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동대신문이 그러한 의사소통 창구로서의 책임감을 더욱 절실하게 새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 = 긴 시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 고석현 기자 dgupress@dongguk.edu

동대신문 역사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동대신문

'동대신문'은 해방직후 1947년에 창간된 '東國月報(동대월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타블로이드판형에 4면으로 제작되었지만 게재된 일부 논문이 정치적으로 불순하다는 점을 이유로 배부되지 못한 채 압수되고, 발행이 중지됩니다.

4년 뒤인 1950년 4월 15일 대판 4면 체계를 가진 동대신문 창간호가 빛을 보게 된다. 하지만 6월 2호 조판 중 '6.25 한국전쟁'이 발발해 발행이 중단되었다.

1952년 6월 피난지인 부산에서 어렵게 타블로이드 4면의 2호를 발간하게 되었지만 조연현 동문의 '동국대학과 나'라는 글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배부되지 못한채 보일리에서 불태

워지게 된다. 이처럼 동대신문을 창간 초반 큰 어려움을 겪었다.

피난생활을 접고 서울에 돌아온 1953년 4월 양주동 교수의 지도로 3호부터 타블로이드 4면의 '동대월보'를 속간하면서 현재 동대신문의 기반을 다지고 발전해 나가기 시작한다. 1955년 7월 7일 '東國時報(동국시보)'로 제호를 변경한다. 1960년 주간제를 두고 초대주간에 정대영 동문이 취임했다. 1962년 7월 6일 '東大新聞(동대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게 되었다.

1963년 학생들의 학술연구와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동대학술상'을 제정하고, 10대 문학도를 대상으로 '전국 고교생 문학 콩쿠르'를 제정했다. 1965년에는 영자

신문사 '동국포스트'를 자체지로 인수했으며 1979년 경주캠퍼스에 신문사를 개설했다. 1986년 '동대학술상'의 '창작문학상'을 '동대문학상'으로 독립시켜 그 위상을 높였다.

1999년 한자제호를 한글제호인 '동대신문'으로 바꾸고 8면과 12면의 교차발행을 실시했으며 인터넷 신문 기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2007년 9월 6일 뉴미디어가 등장하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학내 언론 통합기구인 동국미디어센터가 출범하며 '동국미디어센터 대학미디어팀' 산하기구로 개편되었다.

이제 동대신문은 오는 15일 창간 58주년을 맞게 되어 지령 1457호에 이르렀다.



▲ 창간호(50년 4월 15일) 1947년에 동국월보를 창간했으나 일부 논문이 정치적으로 불순하다는 점을 이유로 배부되지 못한 채 압수되고, 발행이 중지된다. 이후 1950년 4월 15일이 되어서야 대판 4면 순간체의 동대신문이 창간됐다. ▲ 제200호(02년 7월 12일) 동대신문은 '동대월보', '동국월보', '동대신문', '동대시보' 등 수차례의 제호변경을 거쳐 창간 12년 만에 '동대신문'으로 제호가 고정된다. 이와 함께 불규칙적으로 간헐되던 신문은 주간제로 정기발행된다. ▲ 제1012호(09년 3월 1일)창간 이래 견지해온 세로쓰기를 버리고, 독자의 요구에 맞추어 가로쓰기 편집체제로 새롭게 태어난다. ▲ 제1265호(99년 3월 1일) 한글로 제호를 변경하고, 1면과 8면을 컬러 인쇄 한다.

기획연재 - 등록금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④ 외국대학의 모범사례

다양한 학비보조제도, 등록금 문제의 해법

외국대학, 보조금·소득에 따른 차등부과로 학생부담률 줄여

글 쓰는 순서

1. 등록금 문제의 본질
2. 우리대학의 등록금 인상요인 및 재정확보
3. 재단과 종단과의 관계 속에서 재정문제 해결방안
4. 외국대학의 모범사례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어김없이 대학등록금 문제는 대학가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언론은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대학등록금의 인상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부각시키며 대학등록금의 부담한 인상을 보도하고 있고, 새 학기가 시작된 현재까지도 많은 대학에서 학생과 대학당국이 대학등록금을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대치하고 있다.

등록금을 부과하는 많은 나라에서도 최근 등록금 문제는 큰 이슈의 하나가 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 하원이 '연방정부로부터 교육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들이 최근 3년 물가인상률의 평균치보다 2배 이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려고 할 때는 그 이유를 제시토록 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최종적으로 상원에서 통과되지는 못하였지만, 이는 높은 등록금 인상에 대한 미 연방의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대학등록금이 핫 이슈의 하나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요 외국의 등록금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등록금 정책에 주는 시사점이 클 것이다.

외국대학의 등록금 수준

국제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은 대학의 운영방식이나 재정운영 측면에서 서로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는 주로 공립대학이며, 공립대학에는 등록금이 없다. 프랑스계 아프리카 국가들도 대부분 등록금이 없고,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들도, 사립대학의 수는 많으나, 공립대학의 등록금은 아예 없거나 미약한 수준이다.

이들 국가에서 이처럼 등록금이 없거나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육이 공공 이익에 기여한다는 인식이다. 즉, 대학교육은 경제성장, 정치 민주화와 안정,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등록금은 대학교육기회를 제약함으로써 이러한 공익을 저해할 가

능성이 있다. 둘째, 아무리 보조금이 많더라도 등록금은 결국 저소득층, 농촌, 소수인종 출신 아동의 대학진학과 학업지속을 방해하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교육수준과 사회적 평등 목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하숙비와 교통비 등 간접 교육비용이 이미 학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회경비도 높아지고 있어서 등록금 이외의 교육비 부담이 과중하다.

미국, 캐나다, 일본, 인도, 필리핀, 그리고 영국계 아프리카 국가들은 적정 수준의 등록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즉, 대학교육비의 1/3~1/5정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정부가 보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근거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상적 비용의 1/4수준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1974년 이후 등록금을 부과하지 않던 호주의 공립대학도 1989년 이후 등록금을 다시 도입하였으며, 최근에는 등록금 의존율이 급증하였다. 일본의 경우 등록금 의존도는 약 15~20%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양한 국가의 교육재정 규모

사립대학에 대한 공재정 지원의 규모는 매우 다양하며, 공립대학과 같이 보조를 받는 경우부터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은 점차 증가되고 있고, 그 증가율은 연평균 5% 정도이며, GNP 대비 1%의 규모에 이르고 있다. 개발 도상국가의 경우

학생당 교육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둘째, 자격을 갖춘 학생들은 대학 수학에 필요한 장학금과 보조금을 충분히 지급받고 있다. 셋째, 등록금 인상이 높은 것은 높은 대학교육비용 증가율을 그대로 반영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학생 및 학부모들이 높은 등록금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공립대학에 비하여 사립대학을 선호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려고 한다.

미국 전국 주(州)입법부회의의 고등교육 개혁보고서(2006. 11. 27)에서는 최근 대학등록금의 급격한 인상과 더불어 대 학생들을 위한 재정보조지원 규모의 추소는 결국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대학경쟁력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하였다.

구분	국·공립대학 재학생 수(%)	국·공립대학 1년 평균 수업료
대한민국	22.3	3,623
일본	24.9	3,747
미국	69.2	4,587
핀란드	87.0	수업료 없음
이탈리아	93.7	983

구분	사립대학 재학생 수(%)	사립대학 1년 평균 수업료
대한민국	77.7	6,963
일본	75.1	5,795
미국	30.8	17,777
핀란드	13.0	수업료 없음
이탈리아	6.3	3,992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2006)

평균 3만 3천달러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년제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매년 평균 5.7% 인상되었으며, 4년제 주립대학의 등록금은 6.9% 인상되어 물가지수보다 매년 1.24~2.44% 이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미국 대학등록금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고 가처분 개인소득의 증가분보다 웃돌아 이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요는 심각하지 않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만을 대 학당국에 대한 서명 운동으로만 전개하고 있을 뿐, 학내소요로까지 번지지 않는 커다란 이유는 미국 대학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높다는 문화적 인식 차이에 기인한다. 이에 더하여 학생들이 지불한 등록금에 비해 높은 대학교육의 질이 제공되고 있고(등록금 비율 38%), 등록제도가 학생 중심으로 자율화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학비보조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럽국가 '무상교육 원칙'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과 같은 유럽 국가들은 대학교육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업료 징수에 따른 학생 부담이 전혀 없던 영국은 1998년부터 교육경비의 일부를 수업료로 징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생으로부터 징수하게 된 수업료는 표준적인 교육경비의 1/4 상당액으로 매우 저렴하다. 또한 영국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의 금액은 보호자의 연간 소득에 따라 차별화되어 보호자의 소득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업료는 전액 면제된다. 1998년 당시 수업료

전액 면제의 혜택을 받은 학생은 전체 학생의 44%에 달했다.

독일, 프랑스는 영국에 비해 수업료 징수 부담이 더욱 적은 편이다. 그런데 최근 독일에서도 등록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등록금 부과는 주정부에 따라 다르며, 2007/2008 겨울학기를 기준으로 할 때 독일 전체 대학생의 70%가 등록금을 납부하는 주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에서 등록금 제도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국립대학의 낙후된 시설과 대학을 위한 국가 재정의 고갈 등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금을 부과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융자 모델도 함께 고려되어 있다. 출신 가정, 자녀의 유무, 장애 등 개인환경적 조건과 외국인, 성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 정부의 긴축재정 추세 속에서 민영화의 일환으로 등록금제도를 도입하는 추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서 등록금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등록금제도는 학부모부담 지원제, 학생부담 지원제, 정부 보조금, 민간 기부금 등 다양한 학비보조제도와 함께 발달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등록금 문제의 해법은 바로 높은 등록금에 대응하는 다양한 학비보조제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김병주 연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학교교육연구소장

제48주년 4·19혁명 기념 추모식 및 제39회 동국인 등산대회

1. 일 시 : 2007년 4월 11일(금) 09:00~15:00.
2. 장 소 : 국립4·19민주묘지(추모식), 북한산(등산대회)
* 집결 : 오전 9시 까지 국립4·19묘지 내 광장 (지하철 4호선 수유역 5번 출구에서 셔틀버스 운행)
3. 참가대상 :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모든 동국가족
4. 행사일정

행사내용	장소	시간	유의사항
4.19혁명 기념추모식	국립4·19묘지 내 기념탑	추모식 : 10:00~10:20	09:50분까지 참가자 전원 기념탑 앞으로 이동하여 합동분향
개회식 및 출발	국립4·19묘지 내 광장	개회식 : 10:20~10:30 출발 : 10:30부터	시간 엄수
중식	대동문	중식 : 12:00~13:30	지나친 음주 절대 삼가, 쓰레기 개인별 수거 후 하산
하산	도선사 방면	하산 : 13:30부터	4인 1조팀 배반 반납, 하산길 안전사고 유의
5. 팀구성
가. 4인 1조팀 : 학과(부), 동아리, 동문회, 대학원, 교직원 등 자유롭게 구성
나. 학과(부) 단체팀 : 지도 교수 2인 이상, 재학생 40명 이상으로 구성
6. 시 상
가. 4인 1조팀 : 총 10개팀
나. 학과(부) 단체팀 :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3팀
7. 접수기간 : 2007. 4. 1(화)~4. 8(화) 09:00 ~ 17:00
8. 접수처
가. 4인 1조팀 : 학사지원본부 학생서비스팀(본관 3층)
나. 학과(부) 단체팀 : 각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9. 유의사항
가. 4·19혁명 기념 추모식은 행사 참가자 전원의 합동 분향으로 진행함. 나. 우천 시에도 행사는 진행됨(우산 또는 우의는 개별 준비) 다. 대회 진행시 시간 엄수(출발, 중식, 하산 등) 라. 도시락과 쓰레기봉투는 각자 준비 마. 참가자 전원에게 등산대회 기념품 지급 바. 4인 1조팀, 학과(부) 단체팀 심사기준
1) 환경 보호 : 쓰레기 수거(분리수거), 산물조심 홍보 등
2) 단결성 및 협동성 : 팀원 및 구성원간의 협력도
3) 복장 통일성 : 단체 복장 착용 여부
4) 단체팀(학과, 4인 1조)의 차별적 홍보 등
5) 참가 인원(현장 파악)
10. 유의사항
가. 음식물 변질로 인한 식중독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등·하산시 무리한 등주는 피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학사지원본부 학생서비스팀(2260-3043)

학사지원본부

제3기 동국대 홍보대사 '동감' 모집

우리 학교의 학생 홍보대사 제3기생들을 모집합니다. 제2기생들과 함께 '동감'이란 이름으로 본교를 홍보하여 애교심도 키우고 개인적으로 뜻 깊은 추억과 경험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동감’ : 2006년 개교 100주년 행사를 빛냈던 '동국백년 서포터즈'가 새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2기생들까지 선발되었음. 같은 느낌, 같은 생각이라는 뜻과 동국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됨을 상징함. 항상 밝은 얼굴로 동국대학교를 알리기 위해 앞장서는 단체인임.

1. 선발대상 : 학생 홍보대사 '동감'
2. 활동내용 : 가. 대학 홍보물, 광고물 모델 나. 고교생 대상 캠퍼스투어 진행 다. 자체 홍보 프로그램 및 행사 개최 라. 교내의 행사지원 및 귀빈 안내
3. 활동기간 : 최소 3학기 이상
4. 선발인원 : 9명 (남,여 포함)
5. 지원자격 : 가. 2008년 현재 1~2학년 재학생 (1~4학기 등록생) 나. 발표력과 표현력이 뛰어난 학생 다. 애교심이 많고 성실하며, 자기 희생정신과 책임감이 강한 학생
6. 응모방법 : 가.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나. 제출기간 : 2008. 4. 4(금), 4. 7(월) 09:00~17:00까지 다. 제출장소 : 본관 4층 전략홍보실로 본인인 직접 방문 제출 라.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7. 선발 일정

기간	내용	비고
4.2(수)~4.4(금)	광고	홈페이지 광고
4.4(금), 7(월)	서류접수	09:00~17:00
4.10(목)	심사면접	홈페이지 안내
4.15(화)	선발자 발표	본교 홈페이지 공지
4.19(토)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교내 시행
5.17(토)~5.18(일)	워크샵 (예정)	외부 시행(1박2일)
8. 홍보대사 지원사항
가. 홍보대사 활동에 따른 '봉사시간' 반영 나. 전문교육 무료 실시 다. 기타 활동 지원
9. '동감' 과의 상담 연락처
가. '동감' 이메일 : donggam@hanmail.net 나. 동감 싸이월드 : http://club.cyworld.com/dgudonggam 다. 동감 모임방 : 동국관 L동 108호 라. 회장 이선미 : 010-7933-1112
10. 접수 상담 : 전략홍보실 (T. 2260-3026~7) 담당 변재택, 김지우

전략홍보실

‘사람의 길’ 저자 김택근(국문 79출) 동문을 만나다

‘생명의 길, 평화의 길’ 그것이 ‘사람의 길’

파괴 일삼는 현대문명 삶 양식 비판 ... “대운하 언젠가 큰 재앙 만들 것”



“결으면서 내가 가진 상처, 이기심, 욕심들을 하나씩 버리고 왔지, 무거우면 감지 못하거든”

도법스님의 생명평화 탁발순례 이야기를 담은 ‘사람의 길’의 저자 김택근(국문 79출) 동문을 만났다. 그는 도법 스님과 함께 걸으며 자신을 비우려 했다고 말했다. 비우는 것이야말로 채우는 것이며 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 책은 4년간 2만 8천리를 걸으며 전국 구석구석 여행하고 약한 생명을 보듬는 도법스님의 생명순례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김택근 동문은 글을 쓰게 된 동기를 “도법스님은 사상과 실천이 일치하는 분이다.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참된 수행자 중의 한분이라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며 “스님의 순례를 통해 길 잃은 현대인들에게 참된 사람의 길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한다.



■ 저 자 김택근
 ■ 출판사 들녘
 ■ 가 격 1만 3천원
 ■ 쪽 수 232
 ■ 출 간 2008년

부처님은 길 위에서 나고 길 위에서 가신 분이다. 산속에서보다 삶의 현장에서 저 낮은 곳의 노예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생명과 삶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분이시다. 생명평화 탁발 순례의 모습도 그러했다고 한다. 폭력이 난무하는 사나운 ‘농성장’에 이는 분노의 바람에도 탁발순례에 나선 도법스님은 그같은 살기(殺氣)에 아랑곳 하지 않고 끊임없는 대화로 생명을 이야기했다.

김택근 동문이 도법스님과 함께 걸었던 길 위에는 이념의 상처, 피 튀는 갈등, 농민들의 울음, 사람들의 상처가 널려 있었다. 산은 한국전쟁이 가져다 준 이념 대립의 상처를 안고 있었고, 마을과 마을에는 개발과 탐욕의 역사가 묻어나 있었다. 저자는 “하늘의 질서 아래 지구의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길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고 말하며 세상이 입은 상처를 보듬으려 는 스님을 보았다.

20세기는 문명과학의 발전 속에 살아있는 것을 학살한 ‘거대한 무덤’이었다. 21세기 또한 여전히 인간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술한 생명의 고리들은 단절되었고 지구는 병들었다. 이 속에서 스님의 생명평화 사상은 저 건너의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야 할 실천의 지점이었다고 이 책은 말한다.

스님의 순례가 경제발전에도 방해가 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인간은 20분 빨리 가려고 멀쩡한 산에 구멍을 뚫는다”며 “사람

들은 그것을 자연 그대로 보존했을 때 생기는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고 개발만능주의에 대해 비판한다. 그는 “우리 강산은 우리 것이 아니다. 빌려 쓰고 후손들에게 정감하게 남겨주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개발로 파괴를 절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산업의 발전이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다고 여기지만 결국 그 편리함이 사람들을 다시 구속하게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는 새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 정책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하늘의 이치인데 대운하는 물을 끌어올려 하늘의 순리를 거스려 하고 있다”며 “대운하로 인해 스러져갈 생명들의 죽음이 언젠가 재앙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스님의 순례길을 50회 정도 동행했다고 한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100여일을 스님과 동행한 것이다. “스님이 고단한 길에 잠자리도 편치 못했을 텐데 내가 코고는 소리에 잠을 잘 못 이루셨을 것 같다”며 웃는다. 떠날 때마다, 스님을 길 위에 두고 오려니 항상 발이 안 떨어졌다는 그에게 스님은 “또 발발이하려 가는 구나”라며 오히려 그를 위로했다고 한다.

김택근 동문은 우리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에 ‘현대문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학창시절에는 동대신문 편집장으로 활동했으며 졸업 후에는 경향신문 편집부 기자와 문화부장을 역임했다. 지금은 경향신문 논설위원으로 재직중이다.

환경과 문명 비평의 글을 많이 썼으며 그의 글은 예리함과 특유의 따스함을 가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는 “현대사회는 물질의 필요요움은 있을지 모르나 오히려 심성은 폐쇄해져 간다”며 “이런 현대사회를 비판하려다 보니 자꾸 옛 것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나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웃는다.

명색이 시인인데 시집 하나 못내서 아쉽다는 김택근 동문. 앞으로 또 생명의 소리를 잡아내는 글을 계속 쓰고 싶다는 그에게 변함없이 따뜻한 글로 독자들의 마음을 데우는 작품을 기대해본다.

이승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그림으로 본 인도이야기

<3> 다질링에서 만난 기차의 사연

다질링(Darjeeling)에는 인도내에 몇 개 남지 않은 산악 열차중의 하나로 토이 트레인(Toy Train)이라는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록된 증기 기관차가 있다.

우리는 아무 곳에서도 탈 수 없다는 이 기차를 타기 위해 다질링에 도착한 첫 날 분주히 티켓을 예약하고 다음날 오전 10시 40분 출발하는 다질링(Darjeeling)과 굨(Ghoom)을 두시간 일정으로 왕복 운행하는 ‘조이 라이드’라는 이름의 토이 트레인을 탔다. 열차에 타서 출발하는 순간 “빠이이익~!!!!” 하고 울리는 기적 소리와 정발로 칙!..칙!.. 칙!.. 칙!.. 칙칙폭폭!!칙칙폭폭!! 하며 점차 속력을 내며 달리는 기차 소리에 “와~”하며 어린아이들 마냥 신나 했다.

내게 기차라는 말은 늘 어떤 긴장과 설레임을 동반한다. 고향이 바다 건너 제주인지라 성년이 되어 처음 탄 기차는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자유의 의미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은 관광 자원으로 한 몫하는 이 증기 기관차에는 다질링의 아픈 역사가 담겨 있다. 한 때 시킵 왕국에 속해 있던 다질링은 20세기 초 영국의 식민 정책으로서 계획적으로 집단 이주하여 형성된 곳이다. 차를 재배하고 수확하며 그것을 수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열차에는 이 지역에 거주하게 된 대부분의 네팔계 사람들의 아픔이 배어 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다질링의 역사의 이면을 볼 때 그저 신기하게 바라 볼 수만은 없구나 싶었다.

그런 생각에 다다르다 보니 90년대 초 대학 시절 소래 포구를 답사 가서 봤던 마지막 협궤 열차 수선선이 기억이 났다. 마주 보고 있는 승객이 무릎이 맞 닿을 것 같던 좁은 열차 안에서 얼마나 즐겁게 깔깔거렸던지... 대학 시절의 추억과 함께 아스라이 1995년 마지막 운행을 끝으로 사라진 이 협궤 열차 또한 실은 일제 강점기에 식량 수탈을 위해 만들어진 열차였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기차에 대한 기억들을 뒤로 하고 두 칸짜리 작은 열차의 단 한사람의 승무원인 인상 좋은 아저씨를 잠시 스캐치했다. 기차의 수신호를 보낸 이후에 시간표를 기록하던 이 분의 모습에서 여유로움과 평화까지 느껴졌다.

기차가 굨(불교 사원) 앞을 지나가는데 승무원 아저씨가 두 손 모아 합장을 하고 잠시 기도를 드린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김 상 남
애니메이션 영화감독 · 지리교육과 96졸

최민희의 **새이슈는영국연극기**

어학연수 다녀오면 정말 영어를 잘 듣고 말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본인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일단 주변 환경은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갖춰져 있다. 학교, 집, 일반 상점 등 한국어가 통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TV는 물론 DVD에서도 한국어 자막은 볼 수 없다. 더욱이 영어만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단, 어학원에서 굳이 한국인 친구들을 찾아서 어울리거나 인터넷으로 한국 TV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보지 않는다면 말이다.

때문에 나는 일단 스스로 먼저 한국어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매일 영어로 일기를 썼고, 생각도

영어로 하려고 애썼다. 또한 도서관에서 영어책을 빌려 자기 전에 읽었다. 무엇보다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리기에 힘썼다. 시작은 ‘같이 밥먹자’라고 말을 걸어 외국인 친구들과 점심을 먹는 것 부터였다. 이 후 주말을 이용해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가거나, 친구들 집에 초대받아 갔다.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다.

두 번째로 TV와 라디오, DVD를 적극 활용했다. 아침 등교 전에는 항상 기상 예보와 아린이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이 두 프로그램의 특징은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들으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방과 후에는 항상 라디오 스피커 채널을

③ 영어 공부? 즐기면서 배워라!

틀어두었다.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듣는 과정은 정취력, 발음, 억양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훈련이었다. 또한 한가할 때 다양한 영화를 자막과 함께 시청함으로써 영어를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배울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어학연수업을 충실히 따라감과 동시에 방과 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먼저 배운 것을 매일 복습했다. 수업내용정리노트와 단어노트를 따로 만들었다. 그리고 정리한 것을 억양과 발음에 신경쓰며 소리 내어 읽기를 반복했다. 어학원을 결석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었다. 또한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을 최대한 참여했다. 이를 통해 현지인 선생님, 직원들과 매우 친해

질 수 있었다. 상급반의 유럽친구들과도 친해졌다.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이들과 함께 어학원 행사준비와 실행 등 전 과정에 함께하게 됐다. 영국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도 많아졌다. 언어뿐만 아니라 영국 및 유럽문화를 받아들이고 배우는 기회이자,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기회였다. 결국 영어는 머리뿐만 배우는 것이 아니었다. 물론 처음에는 영어가 빠르게 향상하지 않는 것 같아 조금 답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어습득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와 생각하는 구조를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어느덧 나는 영어공부를 즐기고 있었다.

최민희 (사과대 신봉4)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상당】 동국관(M동) 4층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TEL : 2260-3380 FAX : 2260-3385 http://www.wrting.dongguk.edu

제2회 동국 우수 보고서 공모

■ **자격** :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대상** : 2007년 1학기/2학기 및 2008년 1학기 교양 수업 보고서 (전공과목, 졸업논문, 외국어로 작성된 보고서 및 제1회 공모 제출 보고서 제외)
 ■ **응모 방법** : 글쓰기센터 방문 직접 제출
 ■ **응모 마감** : 2008년 4월 11일
 ■ **심사 결과 발표** : 2008년 4월 21일(홈페이지 및 동대신문)
 ■ **시상부문** : 감성문(독서보고서, 영화비평, 일반기행문) 연구조사보고서(학술답사, 연구조사) 일반보고서(그외 일반)
 ■ **시상내역** : 최우수상 3인(부분별 1인) 각 300,000원
 우수 상 6인(부분별 2인) 각 200,000원
 장려 상 15인(부분별 5인) 각 100,000원
 ■ **기타**
 ◇ 첨부하는 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성명, 소속, 학번, 연락처(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강좌명, 담당 교수명]
 ◇ 선정된 보고서는 글쓰기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우수 보고서 자료집에 수록됩니다.

제1회 독서와 글쓰기 공모

■ **자격** :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공모 도서**
 - 오래된 미래 (엘레나 노르베리-호지, 양희승 옮김, 중앙북스, 2007)
 - 만들어진 신 (리처드 도킨스, 이한을 옮김, 김영사, 2007)
 - 버린대기 (황석영 지음, 창작비평사, 2007)
 - 에밀 (장 자크 루소, 김중현 옮김, 한길사, 2003)
 - 리관유 자서전 (리관유, 문학사상사, 1999)
 ■ **응모 형식** : 독서감상문(A4 5~7매 내외 자유 형식 / 사진 등 자료 포함 가능)
 ■ **응모 방법** : 글쓰기센터 방문 직접 제출
 ■ **응모 마감** : 2008년 4월 11일
 ■ **심사 결과 발표** : 2008년 4월 21일(홈페이지 및 동대신문)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인 300,000원
 우수 상 3인 각 200,000원
 장려 상 6인 각 100,000원
 ■ **기타**
 ◇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성명, 소속, 학번, 연락처(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강좌명, 담당 교수명]
 ◇ 선정된 글은 글쓰기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추후 자료집에 수록됩니다.

삶의 무늬, 글[文]

제1회 글쓰기센터 명사초청강연

과학콘서트

강 사 : 정재승
일 시 : 2008년 4월 18일 16:00
장 소 : 중앙도서관 AV실

제1회 외국인 학생 대상글쓰기 공모

- 나의 한국 문화 체험기 -


■ **자격** :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및 대학원생
 ■ **공모주제** : 나의 한국문화 체험기 (A4 7매 내외 자유 형식 / 사진 등 자료 포함 가능)
 ■ **응모 방법** : 글쓰기센터 방문 직접 제출
 ■ **응모 마감** : 2008년 4월 11일
 ■ **심사 결과 발표** : 2008년 4월 21일(홈페이지 및 동대신문)
 ■ **시상부문** : 감성문(독서보고서, 영화비평, 일반기행문) 연구조사보고서(학술답사, 연구조사) 일반보고서(그외 일반)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인 300,000원
 우수 상 2인 각 200,000원
 장려 상 5인 각 100,000원
 ■ **기타**
 ◇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성명, 소속, 학번, 연락처(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강좌명, 담당 교수명]
 ◇ 선정된 글은 글쓰기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추후 자료집에 수록됩니다.

2008년 1학기 보고서 집중상당프로그램

지원 안내(추가 지원)

■ **지원**
 - 지원 대상 : 2008년 1학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졸업논문 및 전공과목과 조별과제물은 제외)
 * 특히 기말보고서를 제출하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선발 인원 : 10명 내외(소정의 상충 지양)
 ■ **신청 및 결과 발표**
 - 신청 기간 : 2008년 3월 7일 - 2008년 4월 11일
 - 신청 방법 : 첨부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heukchun@naver.com) 혹은 방문 제출(신청서는 글쓰기센터 홈페이지(http://writing.dongguk.edu)에서 다운받거나 글쓰기센터를 방문하시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결과 발표 : 2008년 4월 11일(홈페이지 및 동대신문) (*4월 15일 오후 4시 설명회가 있습니다.)

■ **강사소개 / 정재승**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박사
 2005년 미국콜롬비아대에 정신과 조교수
 2004년 한국과학기술원 학제학부 바이오시스템학과 조교수
 2001년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연구교수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시스템학과 교수)

■ **과학과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의학이 빚어내는 유쾌한 상상들**

말 그대로 과학과 여러 학문들이 총체적으로 빚어내는 교향곡이다. 가볍게 '머피의 법칙'을 통해 일상에 감추어진 과학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왜 '내가 선 차선만 차가 밀릴까?' 라는 교통의 물리학, 달에서도 만리장성이 보인다'는 과학 상식의 오류, OJ 심선 사건을 무죄로 결론내게 했던 어리석은 통계학의 허구 등을 유쾌하게 그려낸다. ... (중략) ... 또 신세대 과학자답게 서태지에 열광하다가 그의 헤어스타일에서 '프랙탈 구조'를 발견하기도 한다. - <교보문고 출판사 서평에서>

동국대 사회교육원 작품 전시회

사회교육원은 고객민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평생교육기관입니다. 교수님들과 사회교육원생들이 서예, 전통민화, 문인화, 한지화, 사군자, 전통생활자수, 데코파주, 불교정통꽃꽂이반 등에서 그 동안 갈고닦은 솜씨를 선보이는 작품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교수님의 작품은 판매되어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전시기간**
2008년 5월 1일(목)~5월 7일(수), 10:00~17:00 (5월 4일~5월 5일 제외)
- 장소** : 동국대학교 문화관 동국갤러리
- 전시분야** : 서예, 전통민화, 문인화, 한지화, 사군자, 전통생활자수, 데코파주, 불교정통꽃꽂이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달하나 천강에



김애주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SAM의 '설법하는 부처'

샘에 가지 않았다면 시애틀의 자랑을 놓치고 올 뻔했다.

그 날 '설법하는 부처:샘의 한국 걸작에 대한 심포지엄'은 샘이 소장하고 있던 한국 불교 미술품을 일반에게 처음 공개하면서 여는 일종의 문화적 제식 행사였다. 초청장을 받을 때만 해도 불화 한 점으로 토요일 오후 내내 심포지엄을 연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면서 과연 사람들이 많이 올까 우려하기도 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날 참석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행사 내용 중 동국대 정우택 교수의 특별강의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같은 대학의 동료 교수들을 만나는 반가운 마음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의식 속에 생생히 남아 있는 그 후불행화와의 만남을 잊을 수 없는 경이로운 사건이었다. 샘의 벽 한 면을 온통 채우고 있던 '설법하는 부처'는

영롱했고 장엄했다. 옥의 범회 때 사용했던 불화라 크기가 벽 한 면을 다 차지할 만큼 컸다. 파스텔 색조의 은은한 광채에 싸인 부처님은 마치 지금 사부대중에게 설법하는 듯했다.

심포지엄이 열리는 강당 문을 열었을 때 내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토요일 오후를 반납하고 모여든 미국인들이 많아 놀라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심포지엄의 내용이었다. 샘에 보관되어 있던 후불행화를 거대한 나무 상자에 넣어 한국으로 보내는 장면부터 시작하여 거의 일 년간 한국의 문화 보존 센터에서 진행되었던 복원 작업이 남김없이 녹화되어 우리 앞에 펼쳐졌다. 불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한 시간이었다.

어떤 경로로 후불행화가 시애틀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단정할 수 없지만 대충 6.25사변 때로 본다는 설법이었던 것 같

다. 밑부분이 잘려나가고 많은 부분이 훼손된 채로 오랫동안 샘의 창고에서 동면하고 있던 후불행화는 이렇게 고향에 보내져 한국 사람의 손으로 복원되었던 것이다.

그 날 나를 포함해서 참석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감동했던 것 같다. 심포지엄에 이어 와인 리셉션이 끝난 오후 늦게까지 사람들은 샘을 떠나려하지 않았다.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다시 질문을 하면서 제식의 여운을 느끼려는 듯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후불행화는 많은 무언의 설법을 한 것 같다. 미국전문가의 손으로 복원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아끼지 않고 고국에서 새로 태어나게 한 샘의 배려를 회향하지 않았나 싶다. 또한 승려문이 잿더미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본 우리에게 날개 짓의 추동력은 깊이 내린 뿌리에서 나온다는 진실을 앞서 전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대그의 난 동대신문을 읽는 이유, 읽지 않는 이유



△얕고 넓어서
△학교 신문 챙겨볼정도로 부지런하지도 않고 읽어도 그다 도움 안될 것 같아서...
△동대신문이 커 동아.조선.중앙도 안 보는데 무슨 동대신문이나 커 커 커
△찾기 힘들! 꼭 읽어야 할 기사가 있어 억지로 찾아 읽는 적은 있지만 그럴 때만... 정말
△찾기가 힘들ㅠㅠ 가판대를 늘려야 할 듯(근데 이걸 1학년때부터 건의했던 건데 지켜지지 않더군요.)
△난 피박피박 보는데 가끔 예고 없이 신문 발행이 안 될 때가... 모의토익 입급 계좌 보려고 그 주 내내 신문 찾으러 다녔었는데....
△학교 홍보 신문 같음. 학생들의 비판정신도 없고 사회 문제에 관심도 없고...오직 학교 말만 되내이는 듯
△읽으려고 보면 안보인다
△편한 내용.news라는 말에 걸맞지 않게 새로운 소식이 없다.
△별로 주목할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 아쉬움
△학생신문이 아니라 '학교'신문이기 때문에, 조금더 학생의 입장에



독자 사진첩

바람개비처럼

구름 낀 하늘 아래 풍력발전기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감쪽같다.

바람과 어울리는 모습까지도

사진예술연구회 '동그라미'

대학 내 양성평등문화 정착

그와의 행복한 만남을 위해서

봄의 꽃샘추위가 시샘하듯, 지금 누군가와의 만남에서 봄의 따뜻한 같은 감정이 조금씩 자란다. 지금 우리는 그와 만나며 서로의 말을 얼마나 경청하고 있으며, 얼마나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지난 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이트성폭력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본 데 이어 이번에는 데이트성폭력의 실태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자 한다.

2004년 서울여대에서 실시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데이트성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는 실제적인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상대방의 동의없이 가슴이나 성기, 성관계의 시도 등)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데이트성폭력의 경험에

고, 넷째는 미디어나 음란물에서 볼 수 있는 성표현은 실제와 다름을 인식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일반적인 데이트 비용의 부담은 다른 상대방으로 하여금 솔직한 의사표현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남녀가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좋다.

데이트상대와 행복한 만남을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표현들이 혹시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지, 또는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이 이해하도록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 데이트 성폭력을 예방하는 첫 걸음이다.

고, 넷째는 미디어나 음란물에서 볼 수 있는 성표현은 실제와 다름을 인식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일반적인 데이트 비용의 부담은 다른 상대방으로 하여금 솔직한 의사표현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남녀가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좋다.

데이트상대와 행복한 만남을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표현들이 혹시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지, 또는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이 이해하도록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 데이트 성폭력을 예방하는 첫 걸음이다.



임미랑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양성평등상담소 성고충상담원

보리소

우주와 법계

오는 4월 8일에는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기지에서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탄 우주선 소유스호가 발사되어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떠난다. 47년 전인 1961년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이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우주로 출발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이다. 지금까지 35개국에서 총 474명의 우주인이 배출되었고 이중 여성 우주인은 48명이다. 국내 최초의 우주인이자 최초 여성 우주인인 이소연(30)은 일본인에 이어 두 번째 아시아 여성 우주인이기도 하다.

한국 최초 우주인 탄생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우주비행사가 되고 인기 직종으로 떠올랐다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초등학생 9천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우주인으로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우주 행성 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에게 있어서 하늘은 미지의 공간이자 동경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우주인들은 그렇게 한계 너머에 있는 '공간'과 '시간'을 인류에게 선물한 것이다. 우주는 개척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황금 산업지대이며, 예너지는 물론이고 생명 공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우주인이 되고 싶은 어린이들의 꿈은 바

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주탐사의 꿈과 함께 가져야 할 꿈은, 아니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자신의 마음탐사라 하겠다. 즉 자신의 마음을 반조하고 본래의 마음을 되찾는 일인 것이다. 우주탐사가 곧 인류에게 진정한 행복을 선사하는 일이 되기 위해서라면 말이다.

우주의 사전적 해석을 보면, "무한한 시간과 만물을 포함하고 있는 끝없는 공간의 총체", "천지만물의 총칭으로서 광대무변한 모든 세계를 가리킨다"고 되어 있다. 그 천지 만물이 서로 결집없는 행복한 세계를 불교 특히 화엄경에서는 법계라고 부른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온 우주 법계에 총망하시'는 문다.

이처럼 우주가 바로 법계이고 법계에 부처님께서 총망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본래 부처님 마음처럼 청정하고 지혜로운 그 마음을 회복할 때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감고 있던 우리의 눈을 뜰 때 비로소 어둠던 세상이 본래 태양의 광명이 비치고 있는 밝은 세상임을 알게 되는 것과 같다. 우주탐사가 인류의 행복에 진정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해 주 스님
불교학부 교수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신문역할, 침묵 아닌 알권리 보장

지난 1456호 4면에 실린 기획연재 '재단 · 종단 쇄신, 우리대학 발전의 열쇠'라는 기사는 매우 의미있는 기사였다고 본다.

2007년 11월 신동아의 '한국 불교, 살아남으려면 위대한 사관승(事觀僧) 찾아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도 잘 나와 있듯이 지금 우리 학교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여러 잡음들은 재단인 조계종 내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결과물인 것이 이미 공공연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학생들 중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본인 역시 알고 지내던 기사를 통해 처음 듣게 되었고, 그 세세한 내막은 앞서 언급한 신동아의 기사를 보고서야 알게 되었다.

물론 이번 기사는 종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가 아니다. 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다른 기획기사를 썼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알고 있다면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미 유력 언론을 통해 세상이 알고 있는 일을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동국대의 학생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졸업하신 선배들이나 졸업을 앞둔 고학번 배들은 말하곤 한다. 자기가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4대 사학이라 불리던 동국대는 추락음을 거듭하여 차라리 지방국립대가 낫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이는 단순히 재단 적립금이 많고 적음에 의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재단의 불협화음이 그대로 학교에 전이되어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번 기사는 그 기획의도를 떠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동대신문은 학우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영진
(사과대 신병4·매체비평연구회)

부처님의 지혜로 세상을 밝히는 법조인 배출!

동국대학교

로스쿨 인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천만 불자의 힘으로
佛法을 바로 세우야 합니다!

서명운동 참여방법
• 인터넷
동국대 홈페이지 www.dongguk.ac.kr
• 전화
대법원 홈페이지 www.lawcourts.go.kr
• 팩스
서명운동본부 연락처
02-2260-4931-2

「동국대학교 로스쿨 인가를 위한 법조인 배출 서명운동본부」

2008학년도 후기 대학원 입학전형(1) 신입생 모집

1. 모집과정 : 석·박사과정
2. 모집인원 : 학위과정별 각 학과 약관명
3. 지원자격
* 국내·외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 또는 2008년 8월 취득예정자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고사
- 불교학과(서술/구술), 선학과(구술), 경영행정학과는 필기고사 실시
5. 전형일정

구분	일정
원서접수	2008. 4. 17(목) ~ 4. 25(수)
전형일	2008. 5. 10(토) 10:00
합격자발표	2008. 5. 21(수)

6. 장외혜택
가. 이공계 대학원 석사/박사 신입생 전원 1학년 첫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 단, 교육·연구·실험실습 등의 사부보조 희망자에 한함
나. 분교 출신 학사 또는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자 입학금 전액 장학금 지급(연이내 진학자)
다. 외국인 등록금의 50% 장학금 지급
라. 각종 교외장학 및 조교장학, 총장장학, 명진장학, 동국가족장학 등 다수의 장학금 지급
마. <BK21> 세계화 시대 불교학 교육연구단, <BK21> 차세대 나노반도체 원천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팀 선정 및 기타 국가지원 연구프로젝트 등으로 장학 및 연구비 지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 모집요강 참조

입학처

입학처입학관리팀/서울캠퍼스T.02)2260-8861~4, 경주캠퍼스T.05)4770-2031~4

4월 영화감상토론 프로그램 안내

1. 영외감상토론 프로그램이란: 한 가지 테마를 정해 관련 도서들을 읽은 후 영화나 DVD를 개별관람하고 교수(강사 포함)가 진행자가 되어 학생들과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프로그램임.

2. 일 정
* 일시 : 4월15일(화) 오후3시~5시 * 장소 : 중앙도서관 인문과학실(지하2층) 세미나실
* 진행 : 홍화·윤리·문화학부 윤리문화학전공 김인경 강사
* 선정영화 : 밀양 / 이창동 감독 2007년작 * 관련도서 : 밀양 / 이창준 저 열림원, 2007년
* 원작 <블레 이야기>이정준 저 1985년 * 정월 : 12명

3. 신청방법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광장> 내 <이용자교육> 코너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영화 관련 동아리의 단체신청과 중복신청도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 신청자는 관련 도서를 필히 읽어와야 하며, 영화감상 후 입장권을 토로 당일 제출해야 합니다.
- 영화감상토론 신청 후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차후 중앙도서관 독서증진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
* 토론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1만원)이 지급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86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2008학년도 도서관 장서 및 이용통계

동국대학교 대학원장 제11장 제5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서관보현장, 이용율을 공지합니다.

기간 : 2007. 3. 1 ~ 2008. 2. 29

▶ 총 장서 현황

장서구분	국내서		국외서		고문헌		학위논문		비도서자료		계
	권	권	권	권	권	권	권	권	권	권	
구독중	841,397	132,170	29,204	135,584	54,887	1,193,242					
연속간행물	구입	기증	구입	기증	구입	기증					
소장연속간행물	645	7,405	585	775	1,230	8,180					
소장연속간행물	9,138		3,397		42종	28,046종					

▶ 이용현황

대상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직원	기타	계	
대출	12,407	3,430	410	236	1,884	18,367	
대출	구분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td>직원</td> <td>기타</td> <td>계</td>	직원	기타	계
현황	관외대출	253,455	47,009	5,850	2,161	27,259	335,734
	이용기간	7책/14일	15책/30일	40책/90일	15책/30일		
	인당 대출책수	20.43	13.71	14.27	9.16	14.47	18.28
	1일 대출책수	859.17	159.35	19.83	7.33	92.40	1,138.08

▶ 단과대학별 대출통계

대학	총대출책수	대출책수	1인 대출책수
불교대학	217	7,081	32.63
문과대학	1,347	42,202	31.33
이과대학	887	15,545	17.53
사회과학대학	1,861	41,469	22.28
경영대학	2,117	30,978	14.63
생명자원과학대학	541	10,288	19.02
공과대학	1,766	30,511	17.28
정보산업대학	1,242	20,671	16.64
사범대학	1,126	27,216	24.17
예술대학	656	10,743	16.38
법과대학	554	15,816	28.55
영상미디어학부	93	933	10.03
계	12,407	253,455	20.43

금주의 식단

동국관

월 (4/7)	백만두국(2000)/치즈볶음밥(2000)/돈가스(2500)
화 (4/8)	황구이(2장)(2000)/쇠고기카레라이스(2000)/치즈돈가스(2500)
수 (4/9)	선거일휴무
목 (4/10)	참치김치찌개(2000)/수제돈가스(3000)/쇠고기감자볶음(2000)
금 (4/11)	제육김치볶음(2000)/계란후라이(2200)/꼬치우동(2000)

상록원

월 (4/7)	선산전구이(2000)/카레라이스(2000)/쇠고기국밥(2500)
화 (4/8)	돈육메추리알조림(2000)/매운오삼볶음(2000)/설렁탕(2500)
수 (4/9)	선거일휴무
목 (4/10)	미트볼계란조림(2000)/중국식볶음밥(2000)/순두부찌개(2500)
금 (4/11)	정구미계육볶음(2000)/새싹참치캔비빔밥(2200)/돈가스(2500)

아리수

월 (4/7)	쇠고기카레라이스(2000)/얼무비빔밥-양푼(2000)
화 (4/8)	뽕국(2000)/불고기덮밥(2000)
수 (4/9)	선거일휴무
목 (4/10)	콩나물국밥(2000)/불낙덮밥(2000)
금 (4/11)	순두부찌개(2000)

소규모 발전시설로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 가능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생태계를 위한 적절한 인구밀도는 얼마이어야 하는가? 자연 친화형 주거문화를 갖추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 지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주거 환경은 삭막하기 그지 없다. 우리나라의 어느 곳을 가도 사람 살만하다고 느껴지는 곳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인구가 몇만 천명도 살지 않는 시골에도 고층 아파트를 지어내고 하천은 병들어 가고 있다. 어찌 보면 집짓기에 한이 맺힌 귀신에게 출린 듯이, 보기에도 흉한 개발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주거문화의 축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주거로 이동되면서 우리는 교통, 환경 및 에너지 등 예기치 못했던 도시문화에 적응하느라 시달리고 있다. 주말이면 산을 찾고 도시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고자 골프장을 찾는 인구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삶에 대한 정서도 메말라 오가는 말이 거칠고 이웃 정을 느끼며 인심 좋은 우리의 본래의 정서를 잃은 지 꽤 오래된 듯하다. 도시화, 산업화 및 경제성장 등에 대한 대가치고는 헤아릴 수 없는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대규모 하수처리가 남긴 문제

19세기의 런던은 산업혁명의 덕으로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된 지역이었다. 댐 강변에 밀집된 건물과 공장에서 배출된 하수가 직접 강으로 유입되면서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876년 영국정부는 강으로 직접 하수의 배출을 금지하는 하천오염방지법을 제정하였다. 런던 시내에 하수관이 거미줄같이 깔리고 하류지역으로 하수를 모아서 처리하는 대규모 하수처리장이 건설되었다. 하수를 한꺼번에 모아서 대형 처리장에서 정화하는 대규모 집중화방향이 일반화되었다. 서울에도 4개의 대형 하수처리장이 있다. 청계천과 중랑천 유역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150만 이상



논단
백수현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교수
대한전기학회 차기회장

의 하수는 중앙하수처리장에 모여 처리된다. 규모의 경제에 따른 하수처리 비용의 절감과 유지관리의 편리함 등이 하수처리장이 대형화되는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우수와 하수를 같이 수집하는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도심하천이 복개되었다. 따라서 하천이 도로로 변하거나 건전화되어 도심의 친수환경이 사라져갔다.

환경부는 작년부터 소양강댐, 충주댐, 대청댐 등 우리나라 주요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댐 상류지역에 중소규모 하수처리장의 신설 및 개량사업을 시작하였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은 댐 상류지역에 흩어져 있는 크고 작은 마을에 하수관거를 설치하고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하수가 발생되는 지역 단위로 소규모 처리장을 건설하면 장거리 하수관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깨끗하게 정화된 하수를 처리장 근처의 도랑이나 개천에 방류하면 된다. 하수처리시설의 소규모 분산화를 통하여 하천의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다. 특히 처리된 방류수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하여 시설운영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감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런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의 건설 및 운영은 우리나라의 정보기술의 발전과 인프라 구축 때문에 가능해졌다. 소규모 분산화된 하수처리장의 건설 및 운영기술은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보다 앞서 간다고 할 수 있다.

소규모 처리장의 건설을 댐 상류지역 같이 분산된 작은 마을에만 제한할 필요

는 없다. 서울의 뉴타운같은 재개발단지나 하천복원이 진행 중인 하천의 상류지역에도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공원이나 공공시설의 주차장 지하에 건설할 수 있다. 정화된 물은 중수도로 재이용하거나 단지 내에 쾌적한 친수공간과 하천의 유지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 예전에는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에 건설되는 하수처리장은 모든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은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환경부는 판교신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같은 신도시 건설에도 소규모 분산화 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발전기술로의 전환

이러한 수질보존 대책의 경험은 전력 산업에도 예외가 아닌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 대형 발전소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 생산된 전기는 전국에 거미줄같이 깔려 있는 송전선을 통하여 보내진다. 장거리 송전선과 배전으로 5% 정도의 전력손실이 발생되고, 수많은 송전탑이 아름다운 산과 들의 경관을 해치고 있다. 발전소가 대규모로 건설되는 이유도 다른 환경시설의 대규모화와 비슷하다. 소규모 가스보일러 기술의 발전으로 수년 전부터 아파트들이 중앙집중식 난방에서 편리한 개별난방으로 전환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청정 에너지기술이 발전하고 열효율이 높은 소규모 열병합 발전기술이 개발되면서

에너지 분야에서도 소규모 분산화가 진행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원 가운데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신재생 에너지원은 화석연료가 아닌 바람, 태양 등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원을 이용하며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로 대표되는 국제환경 협약은 신재생 에너지원의 이용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각인시켰다. 즉, 신재생 에너지원은 국가차원의 에너지 안보, 환경문제, 그리고 국가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원이 전력계통에 설치되면 전력계통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우선 기존의 대규모 발전, 고압송전으로 대표되는 전력시스템은 수송가 주변의 소규모 분산발전, 저압배전설비로 점차 대체될 것이다. 이는 장거리 송전에 의한 송전손실 저감과 고압송전선의 사고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를 방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전력계통은 침투부하에 대처하고 계통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신뢰성 있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설비 면에서 약 30% 정도 과잉투자 되어 있다. 신재생 에너지원이 계통에 분산되어 설치되고 각종 에너지 저장설비 및 수소에너지 등을 이용한 연료전지 등이 확산되면 부하변동에 순시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침투부하에 의한 추가설비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산업화시대에 건설된 대규모 집중화된 시설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전력 및 환경기술 등에 정보기술이 접목된 융합기술의 발전으로 소규모 분산화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환경의 변화는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술 개발과 시장을 개척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등을 통해 재발 위험성을 낮추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 범죄자 중의 70% 이상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 현재 법무부가 뒤늦게나마 소아성기호중 등 성도착증을 가진 성폭력범죄자의 치료·교정을 위한 치료감호제도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아동성범죄자들에게 대한 엄격한 처벌과 격리치료 등의 강력한 대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성범죄자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임무다. 적어도 적이 누군지 알고 있으면서도 당할 수만은 없지 않는가.

최미혜 기획부장
Imisonaral@dongguk.edu

사설

창간 58주년을 맞는 우리의 각오

동대신문이 오는 4월 15일, 창간 58주년을 맞는다. 동대신문은 1950년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58년 동안 동국대학교의 역사를 몸으로 증언해온 우리대학의 유일무이한 매체이다. 우리는 창간기념일을 맞이하여 대학신문이 가진 사명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성한 책임에 대해 마음을 다잡으려 한다.

돌아보면 동대신문의 역사는 결코 간단치 않았다. 4.19 혁명 때는 선두에서 싸웠던 학생들과 함께 필봉을 굽히지 않았으며, 군사정권의 폭압아래서는 정론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학생기자가 구속되는 등의 필화를 겪기도 했다.

또한 건강한 대학문화 창달을 위해 학술상과 문학상을 운영해 큰 성과를 거두는 한편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예 콩쿠르를 개최해 문학청년들의 꿈을 키우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역사가 자랑스럽다고 해서 지난 추억만을 들추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는 창간기념일 맞이해 한시도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 긴박한 책임의식을 느낀다.

현재의 우리대학이 놓인 현실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이다. 우리대학은 불교 선각자들이 세운 자랑스러운 민족사학이다. 그러나 어느덧 3대 사학이었다는 자긍심보다는 다른 대학에 점점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학내에 팽배하다. 더 이상 역사만을 들추고 있기엔 우리의 앞길이 너무도 엄중하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동대신문은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대학의 건강한 파수꾼이자 양심의 목탁으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독자들 앞에 서고자 한다.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이해보다는 우리대학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약속한다. 독자들의 기대와 호응에 부합하기 위해 동대신문은 오늘도 펜을 가다듬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동국만평
이주현 nitake@dongguk.edu

CCTV에는 찍히지 않아도 동학의 역사에는 남을...
다음 희생은 생기지 않기를...

메아리

끝나지 않은 책임

▲ 피도필리아(pedophilia). 어린이를 뜻하는 접두사 'pedo'와 병적인 애호행위의 의미인 'philia'를 합성한 정신의학 용어로 어린이 대상의 성도착증을 일컫는다. 이 질환은 일명 로리타 증후군(Lolita syndrome)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여자 어린이에 대한 한 중년 남자의 변칙적인 사랑과 집착을 다룬 미국의 베스트셀러 소설 '로리타'에서 유래된 비공식 의학 용어다. 러시아 출신의 망명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가 쓴 이 소설의 내용은 이러하다. 주인공 험버트 교수는

자신을 매료한 12세 소녀 로리타에게 접근하기 위해 그녀의 엄마와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한 뒤 로리타와 도피행각을 벌이지만 파국적인 결말을 맞는다는 줄거리다. 프랑스 등지에서는 외설이라는 이유로 판매가 금지되었다.

▲ 경찰청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강제 성추행 등의 범죄는 2005년 738건, 2006년 98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081건을 기록해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세 이하 청소년 상대 성폭력 건수도 2005년 3784

건에서 2006년 5159건, 지난해 5460건으로 늘었다.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사례만도 매년 2500건에 달한다. 매일 평균 아동·청소년 7명이 성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범죄자 사후관리 등을 통해 상당수 예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때문에 재범 가능성과 반사회성 등을 철저히 진단해 정신과적·범죄심리학적 치료와 통제가 필요하다. 소아성기호증은 종종 질환으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도 어렵고 치료 역시 쉽지 않아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개별 상황에 맞춘 지속적인 사후 치료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해외의 경우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보호감찰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오영교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편집인 윤재웅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편집장 이운재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DSLR 무엇을 고를 것인가

나의 첫 DSLR 탐색기

봄벌레 개나리, 목련 같은 꽃들이 자태를 한창 뽐내고 있다. 좋은 날을 잡아 친구들과, 가족과의 즐거운 기억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은 어떨까?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카메라, 오늘은 그중에서도 요즘 많은 이들의 눈길을 받고 있는 DSLR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카메라는 크게 두 가지의 용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콤팩트 카메라와 DSLR이 그것. 콤팩트 카메라는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작고 한손에 쏙 들어오는 카메라를 뜻한다.

그러면 DSLR이란 무엇일까? DSLR은 Digital Single Lens Reflex의 약자인데, 이것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짐작하기 어렵다. 쉽게 말하면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카메라 내부의 거울에 반사되어 뷰파인더를 통해 눈으로 보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DSLR은 그 구조상 가격이 콤팩트 카메라에 비해 매우 높았지만, 최근 기술발전과 대중화에 힘입어 손달을 만한 가격으로 우리 곁에 다가서게 되었다. 콤팩트 카메라에 비해 월등한 성능에 많은 이들의 발길을 끌어당기는 DSLR, 메이커 별 특징과 가격을 알아보자.



이박고의 DSLR 촬영 테크닉의 저자 고유석(사학3) 학생을 만나.

“이야기가 담긴 사진을 찍고 싶어요”



이박고 시리즈
DSLR 촬영테크닉/월북/507쪽/2만 5천원
DSLR 포토샵 사진 리터칭/월북/501쪽/2만 5천원

“인세는 얼마나 받으요?” 사람들은 ‘책을 썼다’는 이들에게 꼭 한 번씩은 이 말을 묻곤 한다. 그런데 이 질문에 이어지는 대답 한마디, “셋이 나눠야 해서 많지는 않아도 제 등록금을 낼 수 있을 정도는 되요.”

평창이 유행이었고 저도 한번 찍어보자는 마음에 시작한 것”이라고. 하지만 점점 사진을 찍을수록 욕심이 생겼다고 한다. “그러다가 DSLR도 샀고 좀 더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었다”며 답답하게 말한다. 하지만 제대 후 도서관에 ‘꼭’ 박혀 공부하던 시간에도 너무 사진이 찍고 싶어 오고가는 동선의 캠퍼스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을 정도로 사진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는 풍경사진 찍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사진이란 것 자체가 순간을 담아내고 네모 안에 이야기를 넣는 것 아닌가요?”, “저는 ‘짱’하게 풍경이 다 담기는 사진을 좋아해요” 자신의 사진 철학에 대해 피력하는 그에게서 이야기를 다룰 줄 아는 능숙함이 엿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다재다능한 활동은 사진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현재 다음 블로그로 활동하며 다양한 서울지역의 문화 체험 현장을 생생하게 글과 사진으로 전하기도 하고, 노래를 좋아해 학교 가요제에도 출전을 자주 한다. 2003년 백상가요제에서는 대상도 받았었다. 또, 창업동아리 프리티어 친구들과 대한민국 창업대전에 본선진출하기도 했다. 사방팔방 많은 일들을 해낸 것에 대해 감탄을 하자 “창조적인 일들을 좋아하고, 그것들이 서로 연관되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더 도움이 됐던 것 같다”고 겸손하게 말한다.

“이박고?” 의문을 품게 하는 이름을 가진 이 팀은 ‘이성관, 박태양, 고유석’의 앞자를 딴 동갑내기 친구들의 모임이다. 비추미 명예 사진기자단을 하면서 만나 의기투합해 여행도 함께 가고 사진이야기도 나누었다고 한다. “이런저런 인연이 닿아 함께 책까지 쓰게 됐다”며 친구를 떠올리는 그의 표정이 흐뭇한 웃음이 핀다.

사진은 추억을 담고 있다. 앵글에 포착되는 피사체는 찍는 이의 애정을 듬뿍 받고 있는 셈이다. 책을 집필하면서 그를 복잡 미묘한 감정에 휩싸이게 한 것도 이러한 사진의 특징 때문이었을 것이다. 5년간 찍어놓은 이천오백 기가를 넘는 자료들 중 적절한 사진을 골라내는 작업에 대해 “그 자체도 힘들었지만 잊고 지내고 싶었던 지난 기억들을 다시 봐야 했던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기억한다.

이토록 많은 그의 과거를 담고 있는 사진을 찍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대답은 간단했다. “입학당시 2003년에 콤팩트 디카가

그는 블로그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엄청난 조회 수를 기록하기도 하고 다양한 댓글을 접한다. 포레보다도 특히 3, 40대 팬들에게 더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분들은 진지하게 인생이야기, 사진의 의미 등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굉장히 친밀하게 느껴져요.” ‘이놈의 인기’는 중년의 팬 분들께 감 한 상자를 선물 받은 적도 있을 정도라고.

온갖 예능 관련 활동들을 섭렵한 그는 올해 이박고 시리즈의 후속편인 3권의 책을 더 발간할 계획이다. 현재 인물 촬영 테크닉에 쓰일 사진의 여자 모델을 찾고 있는 고유석 군이 한마디 남겼다.

“모델료를 드리지 못하지만 젊은날의 멋진 사진을 남겨드릴 수 있으니 꼭 연락주세요!”

관심 있는 여학우는 <http://www.cyworld.com/tomatoagi> 에 꼭 들려 방문록에 문의를 해 보길. 이뿐만이 아니어도 ‘고유석 스타일’의 사진이 더 궁금하다면 한번 들려 봐도 좋을 것이다.

그가 좋아하는 렌즈는 10mm의 광각렌즈다. 넓은 범위의 사물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렌즈, 사진에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그의 뜻과 일맥상통하는 취향이다. 그 넓은 화각으로 세상을 담아낸 그가, 당신도 세상의 이야기를 담아내 보겠냐며 손을 내밀고 있다. 이제, 이 경쾌한 손놀림을 따라 네모난 프레임 속에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내 볼 차례다.

문서영 기자
syooob@dongguk.edu



Nikon

유직한장인의 손길
믿을직한 바디 성능과 손맛

- ▶ D40x(1020만 화소)=50만원대
- ▶ D60(1020만 화소)=60만원대
- ▶ D80(1020만 화소)=80만원대

필름카메라 시절 1위의 영광을 누리다 디지털 시대에서는 캐논에 밀려 만년 2위에 머무르고 있는 니콘, 어떤 사진에서도 만족스런 결과물을 내어주지만 컨트라스트가 높고 차가운 이미지를 뽑아주는 경향이 있어 도시, 풍경사진 등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타 메이커에 비해 기계적인 성능 및 내구성이 우수하여 찍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갖게 한다는 평이 많다. 필름카메라 시절부터 제작된 수많은 렌즈가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다만 렌즈의 가격은 메이커 중 약간 비싼 편이다. 보급형 바디로 D40x와 중급 바디 D80이 있으며, 신기종인 D60이 최근 발표되었다. D40x(1020만 화소)가 50만원대, D60(1020만 화소)가 60만원대, D80(1020만 화소)가 8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바디 기준)

Canon



망능의 멀티 플레이어
화사한 이미지와 막강한 노이즈 제어

- ▶ 400D(1010만 화소)=60만원대
- ▶ 450D(1220만 화소)=90만원대
- ▶ 40D(1010만 화소)=110만원대

캐논은 현재 독보적인 디지털 기술을 앞세워 DSLR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타 메이커에 비해 화사한 이미지와 막강한 노이즈 제어능력, 빠른 동작 속도가 특징이며 다양하고 저렴한 렌즈군을 자랑한다. 모든 용도에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다. 캐논의 바디로는 보급형 400D와 중급 바디인 40D가 있으며 최근 새로운 보급형 기종인 450D를 출시해 1위를 고수하고 있다. 가격은 400D(1010만 화소) 60만원대, 450D(1220만 화소) 90만원대, 40D(1010만 화소) 110만원대. (바디 기준)

SONY



미놀타와 소니의 만남
빠지지 않는 성능과 저렴한 가격

- ▶ 알파 200(1020만 화소)=70만원대
- ▶ 알파 350(1420만 화소)=80만원대
- ▶ 알파 700(1220만 화소)=120만원대

과거의 높은 기술력으로 유명했던 미놀타 카메라사를 인수한 후 소니에서도 DSLR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초기제품들은 두 회사 간의 융합의 미숙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최근 틸트시 액정을 채용하는 등 빠른 행보를 보이며 타 회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과거 필름카메라 시절 독보적 기술을 가진 미놀타의 바디 기술을 바탕으로 소니의 전자기술과 유명한 렌즈메이커인 칼자이스의 기술을 융합시킨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으며, 아직은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 탓에 가격에 비해 높은 성능과 기능을 도입하는 추세여서 소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보급기 알파 200(1020만 화소)이 70만원대, 신제품 알파 350(1420만 화소)이 80만원대, 그리고 중급기 알파 700(1220만 화소)이 12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과거 미놀타의 렌즈 및 소니의 렌즈, 그리고 칼자이스의 렌즈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바디 내장 손떨림 방지 기능이 특징이다. (바디 기준)

DSLR이 천냥이면, 렌즈는 9백냥!

바디를 선택했다면 다음은 렌즈가 필요하다. 각 회사별로 무수히 많은 렌즈가 판매되고 있고, 신제품이 아닌 중고도 선택의 폭이 넓다.

렌즈는 그 영역에 따라 광각, 표준, 망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영역의 변화여부에 따라 단렌즈와 줌렌즈로 나눌 수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숲을 찍는다고 가정할 때, 광각렌즈로 찍는다면 숲 전체뿐 아니라 더 넓은 공간이 찍히고, 표준렌즈(=환상50mm)로 찍는다면 눈에 보이는 그대로 찍으며, 망원렌즈로 찍는다면 숲 가운데 나무 몇 그루가 확대되어 찍힌다고 비유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표준 렌즈란 초점 거리가 50mm인 렌즈를 가리키는데, 표준 렌즈라고 부르는 이유는 초점 거리 50mm에서 보이는 화상이 실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풍경과 가장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50mm를 기준으로 50mm보다 초점 거리가 길어지게 되면 망원 렌즈가 되는 것이고 50mm보다 짧으면 광각 렌즈가 되는 것.

광각 렌즈의 경우에는 표준 렌즈보다 화상은 작아지게 되고 화각은 넓어지게 되며 원근감이 과장되게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다. 광각 렌즈에서는 원근감이 강조되어 표현되기 때문에 피사체가 조금만 앞쪽에 있으면 크게 확대되어 보이고

반대로 조금만 뒤쪽에 있어도 작아 보이게 된다. 광각 렌즈를 이용하면 화각이 넓고 전체적으로 초점이 잘 맞기 때문에 상당히 시원스럽고 경쾌한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특히 단체 사진이나 풍경 사진 등에서는 광각 렌즈가 큰 힘을 발휘한다.

망원 렌즈는 일반적으로 70mm 이상의 초점 거리를 가진 렌즈를 가리킨다. 망원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화상은 커지게 되고 화각은 작아지며 원근감의 표현은 잘 나타나지 않게 된다. 망원 렌즈로 물체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배경은 초점이 맞지 않고 흐려진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효과를 이용해서 인물이나 꽃을 촬영하게 되면 인물이 부각되어 멋진 사진을 만들 수 있다.

초보자라면 기본 세트에 포함되어 있는 번들렌즈(주로 18-70mm 영역대가 많다)를 최대한 활용해보는 것을 권하고 싶다. 번들렌즈는 사용자가 가장 많이 쓸 만한 영역대를 겨냥하여 만든 렌즈로서, 특별히 화질이 뛰어나거나 하진 사진이지만 어디 하나 빠지는 곳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번들렌즈로 사진을 찍다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망원 쪽 사진을 많이 찍는지, 광각 쪽 사진을 많이 찍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때 망원렌즈나 광각렌즈를 구입해도 늦지는 않다.

그리고 해상도를 중요하게 느끼는 사용자에게는 단렌즈를 추천하고 싶다. 특히 수동 초점식 단렌즈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도록 하자. 꽃이나 곤충을 접사 촬영하고 싶은 경우에는 매크로 기능이 있는 렌즈를 이용하면 접사가 웅이하니 참고하면 되겠다.

이승호 (컴공4)

더 나은 사진을 위한 선택, 렌즈는 무엇이 좋을까?

Canon

EF-S 10-22mm F3.5-4.5 USM : 61만원
EF 70-200mm F4L USM : 58만원

Nikon

AF-S DX 18-70mm F3.5-4.5G IF ED : 23만원
AF-S VR Zoom ED 70-300mm F4.5-5.6G IF : 48만원

SONY

SAL 50mm F1.4 : 37만원
SAL DT 55-200mm F4-5.6 : 23만원

동대신문 읽고 DSLR 책도 받고!

응모권

이름 : _____
학과 : _____
연락처 : _____

본 응모권을 작성해서 동대신문 앞 추첨함에 넣어주세요. 4월 17일 추첨을 통해 16분께 2만 5천원 상당의 '이박고의 DSLR 촬영테크닉'과 '이박고의 DSLR 포토샵 사진 리터칭'을 골고루 나눠 드립니다.